

사동 구문의 정보 기반적 분석¹⁾

박 병 수

사동 구문은 전통 문법적으로나 생성 문법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어 왔으나 아직도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는 문제이다. 어휘 사동과 구 사동의 통사 분석 방법과 의미 차이 여부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문제들, 사역 동사 “하다”의 보어가 절이어야 하는가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나 이들은 대체로 변형 생성 문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논의이다. 아직 이들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구구조 문법적(Phrase Structure Grammar) 접근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필자가 이 글에서 이를 시도하려고 한다.

필자는 특히 이 글에서 사동 구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정보 기반의(information-based) 이론 또는 제약 기반의(constraint-based) 이론이 유익한 공헌을 한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한다. 정보 기반의 이론이란 변형 생성 문법과는 달리 도출적인(Derivational) 생성 과정으로써 통사 구조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나 구나 문장이 무슨 정보(information)--음운, 통사, 의미 정보--를 지니고 있는지를 기술함으로써 문장의 구조를 기술하는 이론이다. 이러한 정보 기반의 이론을 뚜렷이 표방하고 그것을 명시적으로 구체화하고 형식화한 것이 핵어 중심 구구조 문법(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이하 HPSG)이다. 이러한 접근을 Pollard와 Sag (1994)는 비도출적(Non-Derivational) 접근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글의 둘째 목적은 한국어 통사론의 중요 과제인 “하다” 구문의 구조 기술에 대한 필자의 지론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하고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필자는 모든 종류의 “하다” 구문에서 “하다”는 통사적으로나 의미적으로 그 구문의 주동사(술어)라고 보아 왔다.

- (1) 순이가 철학을 공부를 했다
- (2) 그는 학생들을 전쟁터에 나가게 하였다.

(1)은 이중 대격 구문이고 (2)는 구 사동 구문이다. 두 경우 다 “하다”가 나타나는데 이 “하다” 동사를 어느 경우에도 주동사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1) 이 연구는 1992년도 경희대학교 교내 학술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경희대학교 문리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언어교육연구원 원장.

그런데 이때 “하다”의 보어가 무엇인가가 문제가 된다. 가령 (1)에서 “하다”가 “공부”를 보어로 취한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철학을”과 “공부”를 보어로 취한다고 할 것인가? 또 (2)에서도 사역 동사 “하다”의 경우에 “학생들을”과 “전쟁터에”와 “나가게”등 세 요소가 다 같이 “하다”의 보어인가? 아니면 “학생들을”과 “나가게”등 두 요소만 “하다”의 보어인가? 아니면 “나가게” 한 요소만 보어인가?

먼저 이중 대격 구문에 있어서 “하다”는 “공부”만을 보어로 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왜냐 하면 아래 (3)에서와 같이 “하다”가 명사 하나만을 보어로 취하여 포화 상태에 이르는(saturated) 문장도 있는데, 만약에 (1)의 “하다”는 두 개의 명사 즉 “철학을”과 “공부”를 보어로 취하고 (3)의 “하다”는 한 개의 명사 즉 “운동을”을 보어로 취한다고 본다면, (1)의 “하다”와 (3)의 “하다”는 다른 보어를 요구하므로 그것들은 서로 다른 동사로 하위 분류(subcategorize)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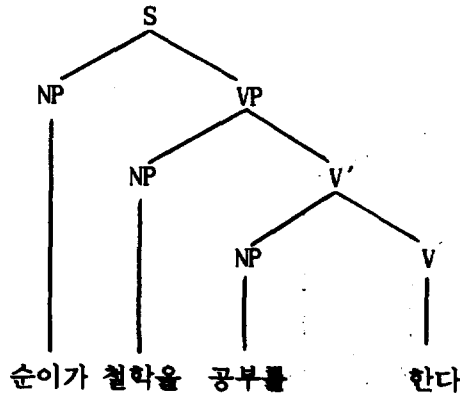
- (3) a. 순이가 운동을 한다.
b. 순이가 여행을 했다.

- (4) 순이가 러시아에 여행을 했다.

그렇게 되면 (1)의 “하다”와 (2)의 “하다” 이외에도 “하다” 앞에 다른 종류의 요소들이 더 올 수 있으므로 “하다”의 하위 분류의 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가령 (4)에서 여행의 목적지 “러시아에”가 나타날 때 이를 또 하나의 보어로 보면 (4)의 “하다”는 (3)의 “하다”와 다른 동사라고 해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필자는 “하다”를 이런 방식으로 과도하게 하위 분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1), (3) 및 (4)에 나타나는 “하다”는 다 같이 하나의 명사구를 보어로 취하는 같은 동사로 보되 그 보어 명사구의 성질에 따라서 그 앞에 또 다른 요소가 더 오기도 하고 오지 않기도 한다고 설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보면 (1)에서 “철학을”은 “하다”와는 직접 관계가 없고 “하다”의 보어인 “공부”의 보어이고, (4)에서 “러시아에”는 “여행을”의 보어가 된다는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이를 나무그림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겠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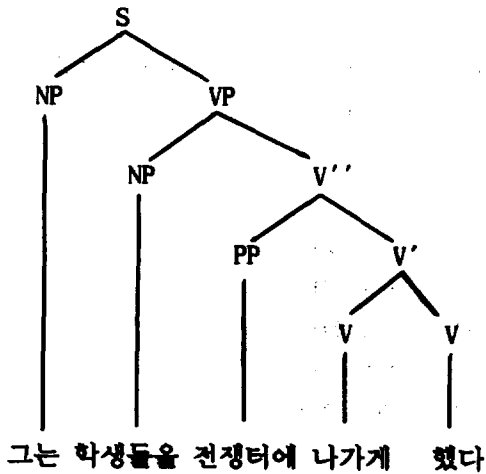
2) 그러나 “순이가 철학을 공부했다”와 같은 경우의 “공부하다”는 “공부”와 “하다”가 결합해서 하나의 단어가 된 것(lexicalized)으로 보고 “공부하다”를 주동사로 분석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다시 “공부”와 “하다”로 나누고 “하다”를 주동사로 분석하는 것은 불필요한 복잡성만 야기시킨다고 보고 이러한 분석에 찬성하지 않는다.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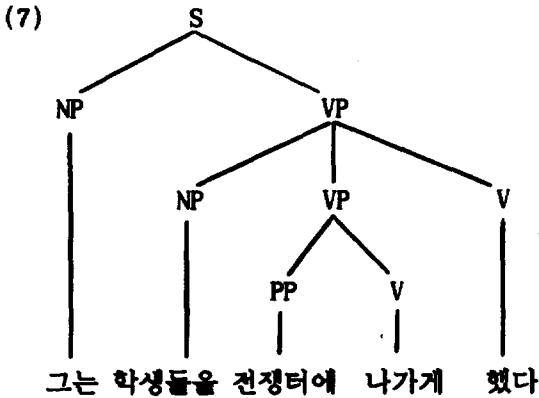


(2)의 사역 동사 “하다”도 이와 같은 시각에서 볼 수 있다. 즉 이 때 “하다”의 보어는 “학생들을”과 “나가게”이고 “전쟁터에”는 “나가게”에 의존하는 요소라고 보는 것이 가능하다.

(6)



이 분석의 성분 분석의 특징으로서, 첫째 두 개의 동사 즉, 보어 “나가게”와 주동사인 사역동사 “하다”가 결합하여 하나의 구성 성분을 이룬다는 점과, 둘째 이렇게 새로 이루어진 동사 구성 성분이 보어를 하나씩 취하여 동사구를 이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것을 아래 (7)과 같은 종래 GPSG의 분석과 비교해 보면 이 분석의 특징이 더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필자도 이러한 분석을 제시한 적이 있었다. ((Park (1984), 박병수 등 (1990), 또는 박병수와 안상철(1988) 참조.)



필자가 여기서 제시하는 사역 구문 분석의 골자는 사역 동사 “하다”가 “-게”로 끝나는 어휘 범주 (즉 동사)와 결합하여 일종의 복합 동사를 이룬다고 보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사역 구문의 성분 구조 분석은 (7)이 아니라 (6)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두 가지 논거를 제시한다. 첫째는 부사의 위치와 관련된 것이고 그 둘째는 어순 뒤섞기와 관련된 것이다.

(7)과 같은 분석의 단점은 부사의 위치를 잘 설명할 수 없는 점이다. 가령 “마지 못해서”, “기꺼이”, “씩씩하게” 따위의 부사가 문중 여러 위치에 올 수 있으나 유독 “했다” 앞에는 올 수 없다.

- (8) a. 기꺼이 그는 학생들을 전쟁터에 나가게 했다.
- b. 그는 기꺼이 학생들을 전쟁터에 나가게 했다.
- c. 그는 학생들을 기꺼이 전쟁터에 나가게 했다.
- d. 그는 학생들을 전쟁터에 기꺼이 나가게 했다.
- e. *그는 학생들을 전쟁터에 나가게 기꺼이 했다.

이와 같이 부사 수식어가 “나가게”와 “했다” 사이에 올 수 없는 것은 VFORM ‘-게’ 뿐 만 아니라 ‘-고’, ‘-지’, ‘-어’등의 경우에도 다 같이 적용되는 현상이다.

- (9) a. 학생들이 전쟁터에 *나가지 결단코 아니하였다/결단코 나가지 아니하였다.
- b. 학생들이 전쟁터에 나가고 *계속/지금도 있다/계속/지금도 나가고 있다.
- c. 학생들이 전쟁을 *싫어 진정 한다/진정 싫어 한다.

부사에 이러한 위치의 제약이 있다는 것은 VFORM ‘-게, -고, -지, -어’가 붙은 동사와 “하다, 있다” 등의 종결형 동사가 하나의 단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부사는 그것이 수식하는 동사 앞에 자유로이 올 수 있다고 가정할 때, (7)에서와 같이 “나가게”와 “했다”가 각기 서로 독립된 위치에 있는 구성 성분이라면 왜 부사가 “했다” 앞에 올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6)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나가게”와 “했다”가 결합하여 다시 하나의 동사를 구성한다고 보면 설명할 길이 열린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사의 위치 제약을 수립해야 한다.

(10) 부사의 위치 제약

부사는 조동사 (즉 V[+AUX]) 직전에 올 수 없다. 그러나 조동사가 본동사와 결합하여 구를 이루면 그 구 앞에 올 수 있다.

부사는 조동사인 어휘 범주 앞에는 올 수 없고 본동사 또는 구 범주 앞에만 올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제약으로 다음과 같은 부사의 위치 제약을 일반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

(11) 순이가 햄버거를 빨리 먹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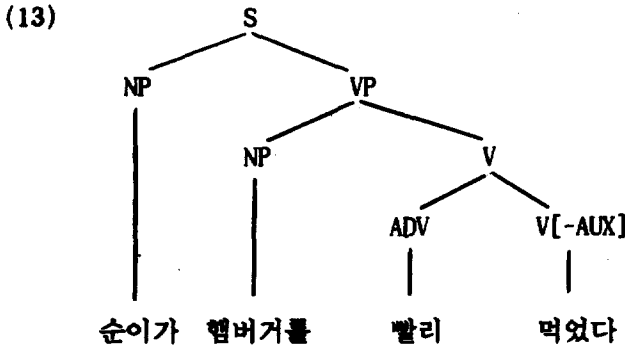
(12) a. 순이가 햄버거를 빨리 먹어 치웠다/버렸다.

b. *순이가 햄버거를 먹어 빨리 치웠다/버렸다.

c. *순이가 햄버거를 먹어 치워 빨리 버렸다.

“먹다”에 이른 바 보조 동사가 연결되어 “먹어 버리다, 먹어 치우다, 먹어 치워버리다” 등으로 되면 어떠한 부사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다. (12c,d)는 부사의 위치 제약 (10)을 위배한 것이다.

사동 구문에서의 부사의 위치도 같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8)의 “기꺼이”는 문장 부사로서 그 문중에서의 위치가 자유스러우나 사역 동사 “하다”는 조동사이므로 그 직전에는 올 수 없다. (8c)는 부사의 위치 제약 (10)을 어긴 것이다. 그러나 (8d)에서는 “했다”가 본동사 “나가게”와 결합하여 구 V’를 이루었으므로 그 구 앞에 “기꺼이”가 올 수 있다. (8d)는 (8a,b,c)와 같이 부사의 위치 제약을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필자는 여기서 X_{bar} 이론상 3 단계의 바 수준을 상정한다. X, X', X'' 등 3단계를 말하는데, X는 어휘 범주이고 X'와 X''는 구 범주이다. X'와 X''의 구분에 대해서는 뒤에 언급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6)과 같은 분석 방법의 또 하나의 장점은 어순 뒤섞기(scramble)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점이다. 만약에 (7)에서 분석한 것처럼 “학생들을”과 “전쟁터에 나가게”가 꼭 같이 VP의 딸이라면 이들 어순을 뒤섞을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서, “전쟁터에”와 “나가게”가 VP의 딸이므로 이 두 성분을 뒤섞을 수 있다고 하면 “학생들을”과도 뒤섞일 수 있어서 이들 세 요소가 모두 서로 뒤섞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이러한 뒤섞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 (14) a. *그는 전쟁터에 나가게 학생들을 했다.
 b. *그는 나가게 전쟁터에 학생들을 했다.
 c. *그는 학생들을 나가게 전쟁터에 했다.

여기서 (14b)와 (14c)는 일견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즉 이들은 한국어에 있어서 하나의 기본적인 어순 제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방법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VP안에서 동사는 반드시 최후 위치에 와야 한다는 것이 그 제약인데 (14b)와 (14c)는 이 제약을 어기고 있다고 설명하는 방법이다. 이 제약을 핵어 최후 위치 제약이라고 부르자.

- (15) 핵어 최후 위치 제약: 구의 핵어는 그 구의 최후 위치에 온다.

그러나 이것이 한국어 어순 기술에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 제약이기는 하지만, 이것으로 (14b)와 (14c)의 비문법성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먼저 (14b)에서 “나가게 전쟁터에”에 있어서 동사가 최후 위치에 오지 않았으므로 비문이 된다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나가게 전쟁터”를 하나의 성분으로 분석할 때에만 유효할 뿐이다. 그러나 성분 분석을 반드시 그렇게만 하게 해줄 보장책은 아무데에도 없다. 가령 “나가

게” 하나만을 VP로 분석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분석하면 어순 제약 (15)를 위반하지 않고 있어서 (14b)는 정문이 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더욱 곤란한 것은 “나가게 전쟁터에”가 어순 제약 (15)를 어기고 있으므로 이것을 바로 잡아 “전쟁터에 나가게”로 하면 전체가 정문이 되어야 하나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고쳐진 문장이 바로 비문 (14a)와 같다.

(14c)에 있어서도 어순 제약 (15)를 이용하는 설명 방법은 같은 종류의 곤경에 빠진다. 여기서도 “나가게 전쟁터에”가 어순 제약 (15)를 위반하므로 비문이 된다고 설명할 것이다. 그래서 이 어순을 바로 잡아 “전쟁터에 나가게”로 하면 과연 전체가 정문이 된다. 그러나 그것도 “나가게 전쟁터에”를 하나의 구성 성분으로 분석할 때에만 성립될 뿐이고, “학생들을 나가게”를, 또는 “나가게”만을 VP성분으로 보면 어순 제약 (15)를 다 잘 지키고 있으므로 (14c)가 정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14)와 같은 사역 동사 구문에서의 어순 뒤섞기 현상의 한계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보어 “나가게”는 다른 보어 성분과 자유로이 섞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시 위의 부사 위치의 경우와 같이, 보어 “나가게”는 사역 동사 “했다”와 결합하여 하나의 단위를 이루어서 “나가게”는 그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곧 필자가 제시하는 사역 구문에 대한 분석의 기본 방향이다. 사역 동사 “하다”는 주동사로서 어미 “-게”가 붙은 동사를 보어로 취하되 이 둘이 다시 하나의 동사를 형성한다고 보는 것이다. 즉 위의 예문 (2)로 돌아가서, 주동사 “했다”가 “나가게”를 보어로 취하되 이 둘이 하나의 동사를 형성한다는 말이다. 이를 나무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6)이다. 여기서 “나가게 했다”는 하나의 동사처럼 행동한다고 보며, 이 때문에 그 사이에 수식어가 끼어들 수도 없고 “나가게”가 떨어져 나가 다른 위치에 나타날 수도 없다.

두 개의 동사가 결합하여 새로운 동사가 만들어지는 것은 복합 동사가 형성되는 과정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사역 동사의 경우에는 완전한 복합 동사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 하면 두 요소 사이에 부사와 같은 수식어는 끼어들지 못하지만 조사가 끼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완전한 복합 동사에 일어나지 않는다.

(16) 나가게 하다--나가게도/까지/는 하였다.

- (17) a. 일어나다--*일어도/까지/는 나다
 b. 들어가다--*들어도/까지/는 가다
 c. 굳어지다--*굳어도/까지/는 지다
 d. 먹어버리다--*먹어도/까지/는 버리다
 e. 갈아치우다--*갈아도/까지/는 치우다
 동동

“일어”와 “나다”와 같은 것은 완전히 결합하여 새로운 복합 동사 “일어나다” 형성된 것으로 보고, 이런 것은 어휘 범주 V에 넣기로 한다. 그러나 “나가게 하다”는 어휘 범주로 볼 수 없다. 수식어가 개입할 수 없는 점과 “나가게”가 떨어져 나갈 수 없는 점으로 보아 이 두 요소가 매우 단단히 결합되어 있기는 하나 조사가 개입할 수 있는 점으로 보아 하나의 어휘 범주가 될 정도로 견고한(robust) 결합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말하자면 “나가게 하다”와 같은 결합은 어휘 범주와 구 범주의 중간 단계쯤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6) 나무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두 개의 어휘 범주 “나가게”와 “하다”가 결합하여 V'를 이룬다고 본 것이다. V'는 어휘 범주 V보다 크고 구 범주 V'보다 작은 단위라는 뜻이다. 동시에 V'는 어휘 범주와 구 범주의 성질을 공유하고 있음을 형식화한 것이라고 보아도 좋겠다.

다시 어순 문제로 돌아가서 보면, 위에서 본 어순 뒤섞기의 문제점은 (7)과 같은 문장 분석 방법에서 나오는 한 가지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학생들을”과 “전쟁터에”와 “나가게”를 모두 같은 종류의 보어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어순을 자유로이 뒤섞는 가능성을 배제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사동 구문을 (6)과 같이 분석하면 이 문제점은 해소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나가게 했다”는 V'로서 하나의 동사와 같이 행동하므로 그 동사의 일부인 “나가게”는 어순 뒤섞이기에 연루될 수 없는 것이다. 요컨대 사동 구문을 (6)과 같이 분석함으로써 “나가게”를 “학생들을”이나 “전쟁터에”와 같은 명사 논항과 구별되는 특별한 보어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와 같은 사동 구문의 분석을 전제로 하고 다음과 같은 어순 뒤섞기 제약을 수립하면 위의 어순 뒤섞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8) 어순 뒤섞기 제약: V와 V'는 어순 뒤섞기에 참여할 수 없다.

지금까지 부사의 위치 문제와 어순 뒤섞기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사동 구문을 (6)과 같이 분석하는 것이 유리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분석의 진정한 장점은 하위 분류화(subcategorization)와 보어 선택의 문제를 기술하는 데에서 나타난다.

다시 (1)의 “하다” 중주어 구문부터 먼저 보기로 한다. 필자가 제시하려 하는 입장은 “하다”가 “공부할”을 보어로 취하고 “공부할”이 다시 “철학을”을 보어로 취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철학을”은 보어 선택에 관한 한 주동사 “하다”와 무관하며, 그것은 오로지 “공부할”에만 의존한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하다”가 “공부할”을 취하여 “공부할 하다”라는 동사를 형성하되 이 동사가 목적어 보어 “철학을” 취하는 것은 동명사 “공부할”의 요구 사항에 따른다는 말이다.

(2)의 사동 구문에 있어서의 보어 선택도 근본적으로 같은 시각으로 본다. 사역동사 “하다”는 “학생들을”과 “나가게”를 보어로 취하나 우선 “나가게”와 결합하여 “나가게 하다”를 형성한다. 다음에 동사 “나가게 하다”가 “전쟁터에”를 보어로 취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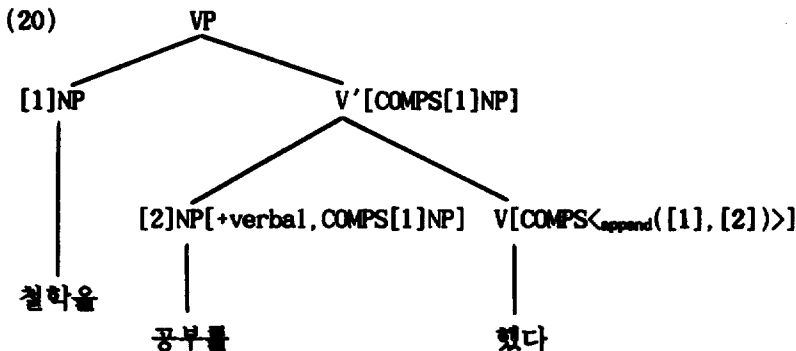
그것은 순전히 “나가게”의 보어 요구 사항에 의한 것이다. 이런 견해를 수용할 수 있는 이론이 무엇인가? 필자는 HPSG가 이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래에서 HPSG의 하위 범주화의 원리에 첨가 연산(append)의 방식을 접목시키면 이 견해를 잘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첨가 연산이란 원래 LISP 등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에서 쓰이는 연산의 한 가지인데 이를 HPSG 이론 틀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이 방법은 부분적으로 Pollard와 Sag(1987)가 영어 동사의 하위범주화를 다룰 때 처음으로 사용한 적이 있었고 그 뒤 Hinrich 와 Nakazawa(1993)가 독일어 조동사의 하위범주화의 HPSG 분석에서 이를 구체화 시켰으며 Ryu(1993)는 이 방법을 한국어 “하다” 동사의 하위 범주화 분석에 적용하였다.

먼저 Ryu(1993)에 토대를 두고, 두 개의 목적어를 취하는 “하다” 동사를 예로 하여 첨가 연산이 하위범주화와 보어의 제공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철학을 공부를 하다”의 “하다”가 다음과 같은 COMPS 값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19) [COMPS<append([1], NP[+verbal, COMPS[1]NP])>]

“하다”는 하나의 요소를 보어로 취한다.(즉 () 안에 있는 것.) 그러나 그 하나의 요소는 어떤 두 요소를 첨가 연산(append)함으로써 얻어진다. 그 두 요소 중의 둘째 것은 동사성([+verbal]) NP이고 첫째 것은 반드시 둘째 요소 NP가 요구하는 어떤 NP보어 바로 그것이어야 한다.(이 점을 번호표 [1]로 나타내었다.) COMPS 값을 이렇게 설정해 줌으로써 이 동사가 VP가 되려면, 먼저 동사성 명사 “공부를”과 결합하여 중간 단계의 V'를 이루고, 다음에 그 V'가 “철학을”과 결합하여 VP “철학을 공부를 하다”를 이루게 되는 과정을 나타낼 수 있다. 나무 그림 (5)에 이 COMPS 값을 반영하여 VP만 다시 그리면 아래와 같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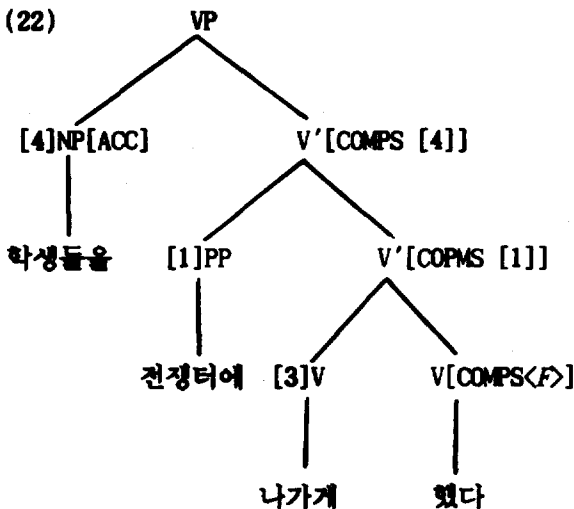
이 나무 그림에서 두 가지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동사 “했다”는 두 개

의 요소 (즉 [1]과 [2])를 첨가한 한 개의 요소를 보어로 취한다고 한 점이다. 둘째, 이 두 요소 중 뒤의 것 [2] 즉 동사성 명사 “공부물”이 먼저 결합하여 V'를 이루고, 앞의 것 [1] 즉 “공부”의 보어 “철학을”은 다음 단계에서 V'와 결합하여 VP를 이룬다는 점이다.

사동 구문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다. 사역 동사 “하다”는 VFORM이 “-게”인 동사와 먼저 결합하고 그 다음 그 동사의 보어와 결합하는 데까지는 위의 “하다” (“공부를 하다”에서의 “하다”) 동사와 같은 상황이다. 그런데 또 하나의 명사를 보어로 더 요구하는 점이 그것과 다르다. 이 마지막의 명사 보어는 사역 동사의 사역의 대상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의미적으로 보어도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를 COMPS 값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1) [COMPS<append([1], V[[VFORM게], [COMPS<[1]>]]), NP[ACC]>]

사역 동사 “하다”는 두 개의 요소를 보어로 취한다. 그런데 이 두 요소 중 첫째 요소는 다시 두 개의 요소를 첨가 연산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사역동사는 세 개의 요소를 보어로 취하는 것이 된다. 이 사역 동사 “하다”가 포함된 (2)의 VP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된다.



단 F는[COMPS<append([1], [3]V[[VFORM게], [COMPS<[1]>]]), NP[ACC]>]

사역 동사 “했다”는 일차적으로 어휘 범주 V“나가게”를 보어로 취하여 V' “나가게 했다”를 형성하고, 이 V'가 PP“전쟁터에”와 결합하여 또 하나의 V'를 형성하지

만 이 PP의 출현은 실은 V“나가게”의 요구 사항인 것이다. 다음 단계에서 이 둘째 V'가 “했다”의 최종적인 보어인 “학생들을”과 결합하여 VP를 이룬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고 그것을 이 글의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첫째, “하다” 사동 구문 구조에 대한 종래의 견해를 수정하였다. 어미 “-게”가 붙은 동사와 “하다”가 결합하여 구 VP(=V")보다 크고 어휘 범주 V 보다 작은 구 V'를 형성하며 그 앞에 나오는 NP 또는 PP보어는 새로이 형성되는 V'의 보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수정의 초점이다.

둘째, 위와 같은 성분 구조 분석은 두 가지 한국어 통사 현상, 즉 부사의 위치와 성분 뒤섞기 현상을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구 사항이다.

셋째, 이러한 설명을 자연스럽게 통사 이론에 수용하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은 정보 기반의 이론이며 제약 기반의 이론인 HPSG의 첨가 연산(Append)을 활용하는 하위 범주화 장치이다.

참 고 문 헌

- 박병수, 이기용, 강범모. 1990. 「영한 기계 번역을 위한 어휘, 형태 및 통사 구조의 영한 대조 분석」 경희대학교 언어 교육 연구원, 한국 과학 기술원 시스템 공학 센터.
- 박병수, 안상철. 1988. 기계 번역을 위한 한국어 구구조 분석. 「영어영문학」
- Hinrichs, E. & T. Nakazawa. 1993. Partial-VP and split-NP topicalization in German: an HPSG analysis. Ms. International Workshop on HPSG at Ohio State University.
- Park, Byung-Soo. 1984. The double object constructions in Korean.
- Park, Byung-Soo. 1988. Sentential predicates in Generalized Phrase Structure Grammar: an analysis of Korean double subject constructions. *Korean Linguistics* 6, International Circle of Korean Linguistics.
- Park, Byung-Soo. 1993. Causative constructions revisited: a constraint-based lexical approach. Paper presented at the Workshop on Korean Interfaces, held in conjunction with the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at Ohio State University.
- Pollard, C. & I. A. Sag. 1987. *Information-Based Syntax and Semantics: Fundamentals*. CSLI, Stanford University.

Pollard, C. & I. A. Sag. 1994.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CSLI, Stanford University.

Ryu, Byong-Rae. 1993. Structure sharing and argument structure: an HPSG approach to verbal noun constructions. Ms. Tuebingen University.